

소망 들어주는 '통통이함' 을 아시나요?

용담1동, 지역사회 중심 복지특화사업 지속 추진 통통이 고평·무력이 통장·독거노인돌보미 등 눈길

제주시 용담1동(동장 윤인성)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복지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용담1동이 추진하는 복지특화사업은 크게 '소망을 들어주는 행복나눔 통통이'를 비롯 '통통이 고평' '무력 이동장' 지원사업, '독거노인 110돌보미' 사업 등 다층적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과 자생단체 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년전부터 민관이 합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의 일환으로 '통통이 고평'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로부터 식품 및 물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는 1440여만원 상당의 물품 기부가 들어와서 1411명의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훈훈한 나눔의 장이 되고 있다. 올해도 기부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483명의 대상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등 일상 속 기부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용담1동이 추진하는 복지특화사업 중 하나인 '통통이 고평'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민들이 물품을 기부하는 등 나눔의 장이 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인 '무력이 통장' 지원사업도 눈길을 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무력이 통장' 지원사업은 용담새마을금고, 용담1동주민자치위원회, 용담1동직원상조회가 함께하는 민·산·관 협력으로 전개되고 있다. 출산 시 출산아동마다 용담새마을금고(3만원), 용담1동주민자치

위원회(1만원), 용담1동직원상조회(1만원)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18명의 출산아동에 대하여 모두 1090만원의 출산축하금이 지원됐다. 여기에는 출생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보미 사업도 중점

추진된다. 이는 지역 자생단체와 홀로 사는 노인과의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용담1동은 지난 2016년부터 '독거노인 110 돌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용담1동 10개 자생단체가 단체별 10명의 관내 어르신들과 결연을 맺어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밀박찬 제공과 나들이 함께 하기 등에 나서고 있는 것. 이 사업을 통해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결연 자생단체의 주기적인 방문은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담1동자생단체와 협약을 맺은 관내 식당에서는 맛있는 '어르신 나눔밥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인성 용담1동장은 "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행정지원뿐 만 아니라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사회 주도의 복지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형기자 yhleee@ihalla.com



“올바른 주정차 문화 함께 실천해요”

서귀포시·영천동 지역단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영천동 지역단체들이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영천동주민센터,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천동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단체·주민과 민관 합동으로 영천동 주택가 및 토평초등학교 일대에서 주정차 근절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지에서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활동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 수준 높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식을 높이고자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릴레이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근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과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정책의 안착을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더 나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4·3유족과 화합하며 아픔 치유 뜻깊어”

제2회 동백꽃 가요제 열려 현기영 소설가 특별강연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회장 강윤경)와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위성곤 국회의원, 양윤경 서귀포시장, 송승문 도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등 4·3유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 창립12주년 기념행사 및 4·3유족과 함께하는 제2회 동백꽃 가요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기영 소설가의 제주4·3에 대한 특별강연, 서귀포시지부회 창립기념행사, 도을 김용욱 선생의 제주4·3영상 관람, 4·3유족과 함께하는 동백꽃 가요제가 진행돼 제주4·3에 대해 바로 알고 4·3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4·3유족 오영석씨는 “행사를 통해 멋진 공연도 즐기고, 유족이 함께 노래도 부르며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



지난 10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 창립12주년 기념행사 및 4·3유족과 함께하는 제2회 동백꽃 가요제가 열렸다.

로도 매해 이런 행사가 개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윤경 서귀포시지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4·3유족이 함께 화합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는 지난 2007년 출범 후 4·3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마다 유족들의 4·3 추념식 참석을 독려하고 도내·외 4·3 관련 유적지를 찾아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는 순례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태윤기자 lly9456@ihalla.com

납읍리 치매안심마을 운영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협약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소장 오용학)는 지난 10일 서부권 지역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납읍읍 납읍리 경로당에서 치매안심마을 운영 협약식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과 김경보 읍읍 이장, 치매안심운영위원회 및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해 치매안심마을을 현판식, 치매안심마을 사업안내,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진행했다.

납읍리 치매안심마을에서는 마을 주민 중 만 60세 이상 성인 438명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전조사와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인지강화교실이 운영되며 치매어르신들에게는 체계적인 치매안심 돌봄 서비스와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오용학 소장은 “가까이 사는 이웃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매파트너 봉사자도 양성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봉개동지역협의체 ‘행복한 반찬나눔’ 전개

제주시 봉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채순복, 동장 송두영)는 지난 10일 관내 어려운 가구에 반찬을 지원하는 ‘행복한 나눔반찬’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을 개최했다.

행복한 나눔반찬 사업은 이웃의 어려움을 지역에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올해 1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반찬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봉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본 사업을 후원해 줄 관내 식품업체와 식당 11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업체에서 지원되는 자원을 봉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복 플러스 사업으로 앞으로 지역 내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형기자

가정의 달 5월,
소중한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여행을 떠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5월 15일 스승의날	5월 20일 성년의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가정의날	5월 20일 세계인의날	5월 21일 부부의날

5월에는 사랑을 표현하기 좋은 날들이 있습니다.
지나치지 말고 **잇고 지냈던 한 마디를 꺼내보세요**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정이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서귀포시가 함께 응원합니다.